

아시아 문화 예술인 교류 네트워크

인도 문화예술 축전



타고르 예술단(사진 왼쪽)의 무용과 이 마을 저 마을 유랑하며 춤추고 노래하는 수행자인 '바울'의 공연 모습.

11-17일 광주 인도박물관

18-20일 보성 대원사 티벳박물관

광주여! 동방의 등불이여!

'인도 문화에 흠뻑 빠져 보자.'

외국으로의 여행을 꿈꾸는 이들에게 '인도'는 묘한 매력 있는 곳으로 펼쳐왔다. 인도가 주는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대규모 행사가 광주에서 열린다.

아시아문화교류재단은 아시아 문화예술인 교류 네트워크의 첫번째 행사로 11~20일까지 무등산 중심사 가는 길에 위치한 광주인도박물관(11~17일)과 보성 대원사 티벳박물관(18~20일)에서 '인도문화예술축전-광주여! 동방의 등불이여!'를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전시회, 무용, 음악, 영화 등 인도의 다양한 예술장르를 한자리에서 만끽할 수 있는 행사다.

행사 첫날인 11일에는 타고르가 세운 숲속 배움터 산타니케탄(평화의 배움터) 교사와 학생들로 구성된 타고르 예술단 '마두리(달콤함)'라는 뜻)와 이 마을 저 마을 유랑하며 춤추고 노래하는 수행자인

인도 시화전 '타고르 시화전'

무용·음악·영화 한 자리
요가·먹거리 체험행사도

바울의 공연이 이어진다.

또 대한민국을 '동방의 불빛'으로 불렀던 인도의 시성(詩聖) 타고르의 생애와 작품세계, 철학 등을 만날 수 있는 '타고르 시화전'과 길 위에서 만난 풍경과 사람들을 소개해온 '제 친구들과 인사하십니까?'의 저자 조병준의 '산타니케탄 풍경 사진전', '김용아 작품전' 등이 개막한다.

12일에는 광재구 시인의 '인도 이야기'가 준비돼 있으며 인도전통춤인 '마니부리' 공연, 인도 요가 체험, 인도문화체험학습 등의 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다.

13일에는 타고르 전기 영화가 상영되며

여행전문가 김광성의 '인도 이야기'를 비롯, 인도전통춤인 '바라타나티얌' 공연, 타고르의 작품을 모티브로 인도 여러 지역의 전통춤을 가미한 타고르 음악극 '전달 라카' 등이 공연된다.

또 17일까지 인도박물관에서는 인도 노래와 춤 따라하기, 인도 영화 상영, 인도 먹거리 제공 등 다양한 행사가 계속되며 매일 저녁에는 시타르, 바라타나티얌춤, 이스라지 등 인도의 다양한 춤과 음악을 만날 수 있는 무대가 열린다.

18~20일 대원사에서는 인도티벳문화 예술캠프가 개최된다. 요가 명상, 바울과 국내 타악그룹 '얼수'의 합동 공연, 인도 문화예술의 밤 공연 등이 준비돼 있다.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로 진행되며 자세한 프로그램은 홈페이지(www.kjasia.org)를 확인하면 된다. 문의 062-224-0045.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비엔날레 예술감독선정소위 재구성

위원장에 이종상씨...22일 국내·외 감독 각각 2명 추천

광주비엔날레 국내외 공동감독 후보 추천을 위한 선정소위원회가 재구성되는 등 비엔날레 예술감독선출 절차가 다시 시작됐다.

제7회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선정소위(이하 선정소위)는 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위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1차 회의를 열고 이종상(대한민국 예술인 회원)씨를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선정소위는 별도 감독추천위원회 구성하지 않고 선정소위 위원들이 내·외국인 감독 후보를 추천한 뒤 오는 22일 2차 회의에서 국내외 감독 후보 2명씩을 확정키로 했다.

국내 외 감독 후보로는 이미 추천된 내·외국인 감독 후보들도 포함키로 했다.

선정소위가 정한 감독 후보 자격요건은 ▲국제 현대미술과 문화지형에 대한 전문적 식견과 판단력을 갖춘

인사 ▲폭넓은 네트워크와 영어 의사소통 능력이 충분한 인사다.

또 ▲현대미술에 대한 연구, 집필 또는 기획경력을 가진 자 ▲광주비엔날레 정체성 부각과 관련, 광주는 물론 세계와 소통하는 문화적 담론 창출이 가능한 미술 전문가다.

한편, 광주비엔날레는 지난달 25일 이사회에서 국내 예술감독을 선출키로 했으나 이사회가 논의 끝에 내·외국인 감독후보를 재추천키로 의결함에 따라 감독선출 절차를 다시 시작했다.

선정소위는 김윤수, 강연균, 남상규, 박지택, 이용우, 이종상, 홍리영, 황영성 씨 등 재단이사 8명과 강태희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김홍희 경기도립미술관장, 유재길 흥익대 교수 등 외부인사 3명 포함 모두 11명으로 구성됐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박전현의 문화카피

'드림 팩토리'를 꿈꾸며

지난해 1월 오승윤(1939~2006) 화백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한국 미술계에 큰 충격을 주었다. 광주 화단을 이끌던 '어른'을 하루 아침에 잃은 지역작가들의 슬픔은 그 누구보다도 컸다.

하지만, 슬픔도 잠시. 고인이 화집제작업체와 체결한 불평등 계약으로 괴로워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뒷얘기가 알려지면서 지역 미술계는 또 한 번 혼란에 빠졌다.

그렇다면 오 화백이 작가의 손과 발을 묶어버릴 만큼 불리한 계약을 감수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여기에는 업체가 화집제작과 연계조건으로 내건 '서울 H갤러리' 옵션이 크게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H갤러리에서 초대전을 열어줄 테니 화집제작에 관한 모든 권한을 넘기라는 업체의 조건에 사한한 것이다.

탄탄한 인맥과 마케팅을 자랑하는 H갤러리는 무명의 작가를 단숨에 스타로 키워내는 미술시장의 '큰손'이다. 때문에 이름값이 알려진 중진작가들도 이 갤러리의 초대장을 받기가 어렵다.

그런 점에서 H갤러리 초대전이란 카드는 오 화백에게는 거부하기 힘든 달콤한 유혹이었다. 불이익을 보더라도 이 갤러리 초대전이 자신의 미래에 그 이상의 '플러스 알파'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다. 인지도가 높은 오 화백이 그럴진대 이름없는 청년작가들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오 화백의 불평등 계약은 지방작가들이 중앙 무대에 진출하기가 현실적으로 얼마나 어려운지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다.

일반적으로 지방작가가 서울 인사동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열려면 2천만~3천만 원의 경비가 든다. 이렇다보니 웬만큼 '작심하지 않는 한' 서울인들이 엄두를 내기 힘들다. 또 철저하게 시장 논리에 움직이는 메이저 화랑들은, 중앙화단에 얼굴이 알려진 스타작가 위주로 전시회를 기획한다. 제 아무리 재능이 뛰어난 지방작가라도 네임밸류(name value)가 약하면 이들의 초청리스트에 끼일 수 없다. 이래 저래 중앙화단에 얼굴을 내밀 기회를 잡지 못하는 지방작가들은 미술시장에서 '영원한 신인' 일뿐이다.

최근 광주작가들에게 다비와 같은 반가운 뉴스가 전해졌다. 광주시가 지역작가들의 중앙무대 진출을 돕기 위해 예산 50억 원을 들여 내년 3월 오픈을 목표로 서울 인사동에 거점 '광주시립미술관 인사동 갤러리'(인사동 갤러리)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 미술계에서는 이 갤러리가 개관할 경우 지역작가들의 중앙대회가 숨통을 트게 될 것이라며 벌써부터 큰 기대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다.

미술인들의 바람처럼 인사동 갤러리가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중앙진출에 대한 열정을 다시 되살려내는 '드림 팩토리(dream factory)'가 되길 희망한다. 우물에서 벗어나 더 큰 세상으로 나가는 광주작가들이 늘어나면 문화수도의 위상도 그만큼 커질 것이다.

<문화생활부장 jhpark@kwangju.co.kr>

북방에 핀 고려인의 꽃, 정추 박사

문화신포니에타, 8일 향토음식박물관서 모닝콘서트

문화신포니에타는 8일 오전 10시 30분 광주 일곡지구 향토음식박물관 중앙홀에서 모닝콘서트 '북방에 핀 고려인의 꽃, 정추 박사'를 연다.

이번 연주회에서는 모차르트의 '디베르티멘토 1번 D장조', 베토벤의 '축배의 노래' 친숙한 곡들을 들려준다.

특히 현재 카자흐스탄에 거주하고 있는 정추 박사는 출신 음악가 정추(84·사진) 박사의 곡을 선보여 관심을 모은다.

모스크바국립음악원 출신으로 북한에서 활동하던 정 박사는 1958년 정치적 망



명을 신청, 카자흐스탄에서 교수와 작곡가로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레퍼토리는 그가 직접 작사 작곡한 '여기가 살기 좋은 고향이리네' 등이다.

김병안(피아노), 김미진(가야금), 노연선·김백호(성악)씨 등이 출연하며 정병열 단장이 해설을 맡는다. 문의 011-645-114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이진경씨 첼로 독주회

8일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첼리스트 이진경(사진)독주회가 8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이 씨는 이번 연주회에서 베토벤의 '마카베의 유다를 주제로 한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12개의 변주곡', 파가니니의 '첼로 솔로를 위한 카프리치오 7번', 포퍼의 '형



가리안 랍소디 D장조' 등을 들려준다.

전남대 음악학과 출신인 이씨는 독일 뮌스터 국립음대 등에서 수학했으며 현재 여수필모케스트라 수석단원으로 활동중이다. 문의 010-2248-1118.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아시아 미술인 광주 생활 결산전

의재문화재단·시립미술관 입주작가 7~13일 옛 전남도청 본관

광주에 머물고 있는 아시아 작가들과 광주 지역 미술인들의 작품세계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전시회가 마련된다.

광주시가 주최하고 의재문화재단이 주관하는 '아시아 문화예술인 거주 프로그램 창작지원 작가와 광주시립미술관 창작 스튜디오 입주작가 연합전시회'가 7~13일 옛 전남도청 본관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회에는 아시아 문화예술인 거주

프로그램으로 지난 3월부터 광주에 머물러 온 아시아 7개국 작가 13명과 광주시립미술관 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 18명이 참가한다.

광주시립미술관 창작스튜디오 작가들은 개성있는 작업세계를 다양한 작품을 통해 선보일 예정이다. 전시 출품작은 영상·설치 13점, 회화 11점, 도예·조각 4점, 사진 3점 등이 다. 전시 개막일에는 다양한 퍼포먼스와 기념



바지라 차르 아 디엔드라 작 'differences'

공연이 열릴 예정이며, 일반인 관람객들의 작품 관람을 돕기 위해 광주외국인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자원봉사 도슨트도 운영된다. 문의 062-232-2700.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메가박스

구. 원도약국사거리 ♥에메이 544-0600

M	관 스파이더맨3 (12세/디지털) 최고등급
2	관 스파이더맨3 (12세/디지털)
3	관 극락도 살인사건 (15세)
4	관 리핑-10개의 재앙 (15세)
5	관 스파이더맨3 (12세)
6	관 날아라 허둥구 (전체)/더블타겟 (18세)
7	관 쉬즈 더 맨 (12세)
8	관 동갑내기 과외하기:레슨2 (12세)
9	관 아들 (전체)

5월 1일부터 메가티즌 데이 할인이 종료됩니다.
* 이프유 주차장 이용시 3시간 무료 (단, 영화 관람객에 한함) 3시간 초과시 정상요금 부과
* 무료팝콘 뷔페-티켓만 있으면 팝콘이 무료

— 주차장이 편한 극장 —

엔터시네마

충장로 5가 ☎ 228-2700

1	관 눈부신 날에 (15세)
2	관 고스트 라이더 (15세)
3	관 아들 (전체)
4	관 동갑내기 과외하기 (12세)
5	관 극락도 살인사건 (15세)
6	관 날아라 허둥구 (전체)
7	관 스파이더맨3 (12세)

금,토(2일간)심야상영
* 자주식 동시 주차장 20대 <3시간 무료>
* 매주 금·토 심야 2,000원 할인*

향토사랑 영화사랑 *에메이:www.joycbc.com/ 1588-7941

콜롬버스 시네마

상무점 (상무병원과 이미지 사이) 하남점 (무억회관 뒷편)

1	관 극락도 살인사건 (15세)
2	관 <어린이전용관>살롱의 거미줄 (전체/타겟)
3	관 더블 타겟 (18세)
4	관 날아라 허둥구 (전체)
5	관 닌자거북이(TMNT) (전체)/동갑내기 과외하기 레슨2 (12세)
6	관 아들 (전체)
7	관 스파이더맨3 (12세)
8	관 아들 (전체)
9	관 스파이더맨3 (12세)
10	관 스파이더맨3 (12세)

* 호남 최대 주차장 *매일심야 상영합니다 1588-7941
콜롬버스 하남점 (107관) 절친리 상영중 상영원예를 받음
-1(번) or 2(번) -> 0(번)

즐거움이 가득 *www.mct12.co.kr/ 1588-9101

무등극장

충장로 1가 ☎ 232-9106

1	관 더블 타겟 (18세)
2	관 동갑내기 과외하기 2 (15세)
3	관 스파이더맨 (12세)
4	관 스파이더맨 (12세)
5	관 스파이더맨 (12세)
6	관 극락도 살인사건 (전체)
7	관 리핑 (15세)/날아라 허둥구 (전체)
8	관 닌자거북이 (전체)/이대근,이대은 (전체)
9	관 아들 (전체)

* 리버사이드호텔 무등주차장(구 수협) 3시간 무료주차
* 타임레스 회원만을 위한 전용청구 미연 인터넷 예매 문의 1588-9101
* 전화예약 가능
* 주말에도 포인트 사용 가능

새로운 기쁨 *www.fellicinema.co.kr/www.primusicinema.com

제일시네마

충장로 3가 ♥ARS 전화예매 227-1960♥

1	관 스파이더맨 (12세)
2	관 스파이더맨 (12세)
3	관 동갑내기 과외하기 2 (15세)
4	관 극락도 살인사건 (15세)
5	관 아들 (전체)
6	관 리핑 (15세)/날아라 허둥구 (전체)

* 티켓만 있으면 팝콘이 공짜!
* 무료주차 3시간(이프유 동아주차 ARS 전화예매 문의 장, 호남성당앞 이프유 주차장) 단, 입장권 구매 고객에 한함 227-1960

